

ITU-T TSAG 국제회의



이근구 TSAG 수석대표, TTA 표준화본부장

김기훈 TTA 표준화본부 수석연구원

이민아 TTA 표준화본부 선임연구원

1. 머리말

ITU-T TSAG(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전기통신자문반)은 ITU-T의 제반 활동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ITU-T A 시리즈 권고(Recommendation) 등에 정의되어 있는 작업 방법 및 ITU-T 작업 프로그램(Work Programme) 과 ITU-T 표준화 활동과 관련된 내외부 협력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2018년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5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이번 TSAG 회의에는 40여 개국 100여 명이 참석하였고 한국에서는 5명의 국가대표단이 참석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ITU-T 작업방법 관련 권고인 A.1의 개정 방향, 표준화전략 그룹의 활동 방향, 연구반 연구과제 조정 및 승인, ITU-T 결과물의 주기적 검토 등을 논의하였다.

2. 주요 회의 내용

2.1 ITU-T 작업방법 논의

ITU-T는 다양한 국가·지역·국제표준화기구 및 사실표준화기구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효과적이고 실효성있는 글로벌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산업체가 주도하여 제정한 사실상의 표준을 공식표준화기구인 ITU 표준으로 전환 채택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글로벌한 표준 확산과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ITU-T SG20에서는 IoT 분야의 세계 주요 표준화기구 간의 협의체인 oneM2M¹⁾의 규격을 ITU-T 권고로 전환하여 채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다른 표준화기구의 표준 텍스트를 준용하여 ITU-T 권고를 개발할 때 준수하는 ITU-T 권고 A.25(ITU-T와 타 기관 간 텍스트 준용(incorporating)을 위한 일반 절차)가 2016

1) 사물인터넷 분야의 시장표준 개발을 위해 유럽,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 전 세계 8개 표준개발기구를 중심으로 설립된 표준화협의체로, SKT, KT, LG유플러스, 시스코, 화웨이, IBM 등 240여 개 업체가 참여 중

년 제정되었으나, oneM2M은 A.25에서 제시하는 자격 요건²⁾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SG20 회의에서는 oneM2M의 회원사인 노키아 등이 기고서로 ITU-T 권고로 전환채택할 oneM2M 규격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이번 TSAG 회의에서 미국, 캐나다, ARIN(미국 인터넷 번호 등록 협회)은 타 기관의 표준 텍스트 준용 시 반드시 A.25를 따르도록 제안하는 기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oneM2M은 A.5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이 제안이 수용될 경우 oneM2M 규격을 ITU-T 권고로 전환 채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대해 SG20 연구반 의장국인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SG20 연구반에서 이루어진 oneM2M 규격의 ITU-T 권고로의 전환 채택은 A.25가 아닌 A.1(ITU-T 연구반 작업방법)에 따라 회원 기고를 통해서 추진된 사항으로, 이러한 논의가 현재 진행중인 oneM2M과의 협력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미국, 캐나다는 oneM2M과의 협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타 기관 표준의 준용 절차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안이었음을 설명하였다.

한편, TSAG 산하의 작업방법 라포치그룹에서는 라포치 및 에디터를 위한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는데 A.1과 동 매뉴얼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우리나라는 국가기고서로서 특히 회의취소와 관련된 개정사항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A.1에는 회의 취소를 관련 SG 혹은 WP 의장 동의 하에 TSB 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뉴얼에는 라포치가 WP 의장과 상의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새로운 조항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지지를 표명하였으

나, 전자 회의 등 다양한 회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기고서가 불충분하게 제출되는 경우, 회의를 취소한다'라는 현재 규정에서 '불충분(Insufficient)'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상기 A.1 및 A.25 등과 관련된 개정 논의는 시간 상의 이유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못했으며 차기 TSAG 회의 전까지 전자회의를 통해 개정 작업을 진행기로 결정하였다.

2.2 ITU-T 결과물의 검토

ITU와 더불어 세계 3대 표준화기구인 ISO의 경우 5년 단위로 기 제정된 표준의 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ITU-T의 경우 WTSA 결의 1에 각 연구반이 기 제정된 권고의 개정 및 폐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고서 기반의 개정 이외에 별도의 기존 권고에 대한 개정·폐지 검토는 실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 유효한 ITU-T 권고가 4천여 개에 달하고 있고, 시장 및 기술변화에 따라 해당 권고를 현행화하기 위한 정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국가기고서를 제출하여 TSAG이 각 연구반에 해당 연구반의 책임 내에 있는 권고의 개정 필요성 등을 검토하도록 상기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동 제안에 대해 다른 국가의 반대는 없었으나, ITU는 회원의 기고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조직으로 개정·폐지 또한 회원의 기고서를 기반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TSAG은 승인된 ITU-T 결과물(권고 및 기타 문서)의 유효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렇지 않다면, ITU-T 회원에 관련 연구반으로 기고서를 제출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하였다.

2) A.25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A.5(ITU-T 권고에서 다른 기구 문서 참조 인용을 위한 절차)의 Annex B(자격 요건)에 따라 자격을 갖춘 기관이어야 하고, A.25는 전환채택할 규격을 TD(Temporary Document)로서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2.3 연구과제 조정

SG11이 현재 Q.3961(Testing methodologies of Internet related performance measurements including e2e bit rate within the fixed and mobile operator's networks)을 개발하고 있으나, 해당 초안 내의 특정 부분이 SG12에서 개발한 권고 Y.1540(Explanation of TCP-based measurement inadequacy to meet normative requirements)의 요구사항을 위배하고 있고, 또한 IETF에서 Y.1540을 기반으로 'Model Based Metrics for Bulk Transport Capacity'라는 표준을 개발하고 있고 SG12가 동 표준을 기반으로 성능 파라미터 및 측정 방법을 개발할 예정임에 따라 SG11에 이 작업이 종료된 후에 Q.3961 개발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SG11은 Q.3961이 SG11의 업무영역 내에 있으므로 SG11의 작업에 SG12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것을 제안한 반면, SG12는 네트워크 성능에 대한 주도 그룹이 SG12이므로 SG11이 SG12 회의에 참가하여 논의하는 것이 보다 적합함을 주장하였다. 상호 간에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TSB에서 두 그룹 간에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별도로 마련하여 추가적인 논의를 지속키로 결정하였다. 이 밖에 SG3에서 신규 연구과제로 추진하는 서비스 품질(QoS) 및 체감 품질(QoE) 관련 경제 및 정책 이슈 또한 품질 관련 주도 그룹인 SG12와의 업무범위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회의 기간 내 합의가 되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그룹 간 추가적인 전화회의를 개최키로 결정하였다.

2.4 기타

ITU에서는 전권회의, 이사회, 총회 등의 주요 회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당 회의별로 결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최근 각 회의의 결의들이

상호 참조되면서 중복되고 불필요한 결의들이 양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권회의 결의에 가능한 한 부문 이슈를 포함함으로써 부문별 결의를 간소화,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지지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전권회의 이후, 동 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WTSA 결의를 부문 특화적이며 간소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키로 결정하였다.

3. 맺음말

ITU-T 작업방법 관련하여, 현재 SG9, SG17 등에서도 타 기관의 텍스트를 준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절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권고 개정 작업을 위한 전자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oneM2M 규격의 ITU-T 권고로의 전환채택에 관한 문제는 oneM2M 규격의 전환채택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전환채택에 있어 사전에 관련 절차를 전체 회원에 투명하고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던 문제와 더불어 향후 타 기관의 표준을 전환채택할 경우 IPR 및 저작권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타 기관 표준을 준용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기고서로 제출하더라도 IPR 및 저작권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명확하고 공통된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향후 A.1의 주요 개정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TSAG 회의는 2018년 12월 또는 2019년 1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